
▣ 일반논문 ▣

경상도 의흥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신진희

자운(紫雲) 이중구(李中久)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
-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자료의 소개를 중심으로 -
김현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고증과 문화유산 지정방안
이병규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정비·활용방안
홍성덕

경상도 의흥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신진희*

〈목 차〉

머리말

I. 동학농민군의 경상도 의흥지역 진출

II. 의흥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III. 신석찬 義旅의 동학농민군 진압과 會約所 활동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경상도 의흥 지역에 동학농민군이 유입된 경로를 살펴보고, 의흥 사람들이 동학농민군에 합류하게 된 원인을 밝힌다. 또한, 동학농민군이 의흥 지역에서 펼친 활동을 파악하고,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자 했던 신석찬 의려의 활동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다. 이를 통해 의흥 지역은 물론, 그 주변 지역인 칠곡과 군위의 동학농민군 모습을 조명한다.

1894년 8월 17일 의흥지역 동학농민군이 이동한 경로는 예천-비안-의성-의흥이다. 예천을 통해 비안으로 갔던 동학농민군이 의성을 거쳐 의흥으로 이동한 것이다.

* 경국대학교 강사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의흥현감 채경묵의 부정부패였다.

의성 동학농민군은 의흥 북동으로 들어와, 신원을 점령하여 근거지로 삼았으며, 주변지역인 대울, 거수로 진출하였다. 또 의흥을 넘어서 칠곡의 동북면과 군위의 효령으로 나아가 세력을 확장하였다.

申錫燦(1851~1921)은 동학농민군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8월 20일에 의려를 결성하였다. 다음날은 21일 신원에서 동학농민군과 첫 번째 싸움을 했고, 곧이어 신녕싸움이 22일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22일 낮에 벌어진 효령싸움을 끝으로 신석찬 의려와 동학농민군과 싸움이 끝났다.

신석찬은 동학농민군과 싸움이 끝난 후, 향촌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회약소를 결성했다. 회약소 구성원은 의려에 참여했던 이들이 중심이었고, 의흥 지역과 군위·칠곡 지역을 포함하였다.

주제어 : 의흥, 동학농민군, 신석찬, 채경묵, 경로

머리말

1895년 당시 경상도漆谷은 東北面, 西北面, 下北面, 八莒面, 退川面, 文朱面, 伊彦面, 上枝面, 道村面, 蘆谷面, 巴彌面, 山城面으로,¹⁾ 軍威는 孝靈面, 中城洞面, 南面, 西里面, 召召本面, 石乙本面, 花谷面으로,²⁾ 義興은 中里面, 下里面, 乃化里面, 友保里面, 巴立田面, 小首里面, 身南面, 缶東面, 縣內面, 缶南面, 缶西面, 牛谷驛里로 구성되어 있었다.³⁾ 1914년 군위군에 편입되면서 召保面, 軍위면, 효령면,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중 하나가 되었다.

경상도 칠곡·군위·의흥지역 동학농민군에 관한 연구는 김봉곤, 신

1) 漆谷郡, 『漆谷府邑誌』, 1899(광무3), 7~8면(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 軍威郡, 『軍威郡邑誌』, 1899(광무3), 8~9면(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 義興郡, 『義興郡邑誌』, 1899(광무3), 8~9면(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진희에 의해 진행된 적이 있다. 김봉곤의 연구는 『蒼溪實記』를 바탕으로 칠곡·군위·의흥지역을 살폈다.⁴⁾ 다만 『蒼溪實記』를 중심으로 살폈기에 동학농민군의 움직임보다는 신석찬의 동학농민군 진압 관련 내용과 신석찬의 업적을 추승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었다. 신진희의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의 한 부분으로 『蒼溪實記』를 중심으로 신석찬의 동학농민군 진압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의흥 동학농민군의 움직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⁵⁾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상도 북부인 의흥지역에 동학농민군이 들어오게 된 경로와 동학농민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의흥 사람들이 동참하게 된 원인을 살핀다. 또 유입된 동학농민군이 했던 활동을 사례별로 나누어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군의 활동으로 인해 신석찬 등이 칠곡·군위·의흥지역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벌였던 활동 등을 서술한다.

이를 위해 의흥 중심으로 자료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의흥지역 동학농민군 진압자료인 『蒼溪實記』를 기본으로 하고, 의흥 유림 李致宇(1828~1905)의 문집인 『柳下集』에 의흥현감 채경묵에게 보낸 편지인 「與義興倅蔡侯」를 참고로 한다. 그 외에도 『司法稟報』, 『別啓』, 『啓草存案』, 『承政院日記』, 『官報』 등 관변측 자료와 『(김산)召募事實』, 『羅巖隨錄』, 『永嘉記事』, 『李章繪隆熙四年記錄』, 『예천 맛질박씨家일기(渚上日月)』 등 의흥 주변지역에서 의흥과 관련된 사실 등을 적은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자료들은 동학농민혁명사료아카이브(<https://www.e-donghak.or.kr/archive/>)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承政院日記』, 『官報』 등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와 한

4) 김봉곤, 2014.08.26., 「『창계실기(蒼溪實記)』와 경상도 의흥·군위·칠곡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 경상북도·상주시·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5) 신진희, 2016,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동학농민군 진압 사례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예천 맛질박 씨家일기(渚上日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기록유산DB(<https://jsg.aks.ac.kr/vj/>) 등 다양하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하였다. 이외에도 「李章繪隆熙四年記錄」는 낱장으로 문서인데 2012년에 발견되어 석사학위 논문에 인용되었고, 『永嘉記事』는 2019년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I. 동학농민군의 경상도 의흥지역 진출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가장 먼저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포착된 곳은 예천이다. 1894년 3월 최맹순이 예천 소야리에 접소를 설치한 것이 그것이다.⁶⁾ 4월이 되면 상주의 화북, 김산과 지례에서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포착되었다. 상주 화북 산내 7개 마을 대표들이 경상감사에게 동학농민군의 ‘聚黨’을 보고하면서 알려졌고,⁷⁾ 이들은 충청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지원하였다.⁸⁾ 4월 초순 최시형이 호남 동학농민군 타살문제를 좌시할 수 없으니 청산에서 모이자는 통문을 돌린 것과도 관련될 듯하다.⁹⁾ 김산·지례·거창에서 동학농민군 협의로 20여 명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3명이 동학 13자 주문인 “爲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를 가지고 있었다.¹⁰⁾

6) 『甲午斥邪錄』 1894년 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261쪽).

7) 「경상도 상주 화북 동학 고문서」(박맹수,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9, 187~190쪽 참조).

8) 「慶尙道內東學黨狀況探聞報告(1894년 06월 13일자)」,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 충청북도, 2006, 「충북지역 동학농민혁명 일지」,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323쪽.

10) 「慶尙道內東學黨狀況探聞報告(1894년 06월 13일자)」,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이 자료에서 “지난달 중순客月中旬ノ頃”은 양력 5월 중순이다. 따라서 음력으로 4월이다.



〈그림 1〉 4~6월 동학농민군 활동 포착지역

5월이 되면 선산, 상주, 유곡을 “동학농민군의 巢窟”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¹⁾ 6월에 들어서면 성주에서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포착된다. 동학농민군이 성주관아를 점령했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¹²⁾ 성주 외에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던 곳이 예천이었다.

6월 21일 경북군이 불법점령되고, 23일 일본군이 청군의 해군함대를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이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에 병참부대를 배치하였다. 경상도 북부지역에 설치된 일본군 병참부대의 위치는 대구-다부역-선산 해평-상주 낙동-함창 태봉-문경 등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협으로 인해 7월이 되면,

11) 「慶尙道內東學黨狀況探聞報告(1894년 06월 13일자)」,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2) 신영우는 1984년 「1894년 영남 예천의 농민군과 보수집강소」(『동방학지』 44, 1984, 217쪽)에서 6월 성주관아가 점령되었다고 하였으나 1991년 연구(「1894년 영남 김산의 농민군과 양반지주층」, 『동방학지』 73, 1991, 183쪽 참조)에서 이를 정정하였다.

예천 동학농민군 최맹순은 소야접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7월 초, 예천 동학농민군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일부는 비안현(의성군 비안면)으로 들어왔다. 관노들이 동학농민군에게 관아의 문을 열어주면서 동학농민군의 관아점령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세금부과의 기본문서였던 良籍도 소각하였다.¹³⁾ 늦어도 7월 하순에는 벌어진 일인 듯하다. 의성현령 이관영이 안동영장 김호준에게 몸을 의탁한 사실이나, 예천 금당실에 살고 있던 박주대가 7월 25일에 이 소식을 접하고 일기로 남긴 점으로 보아 그러하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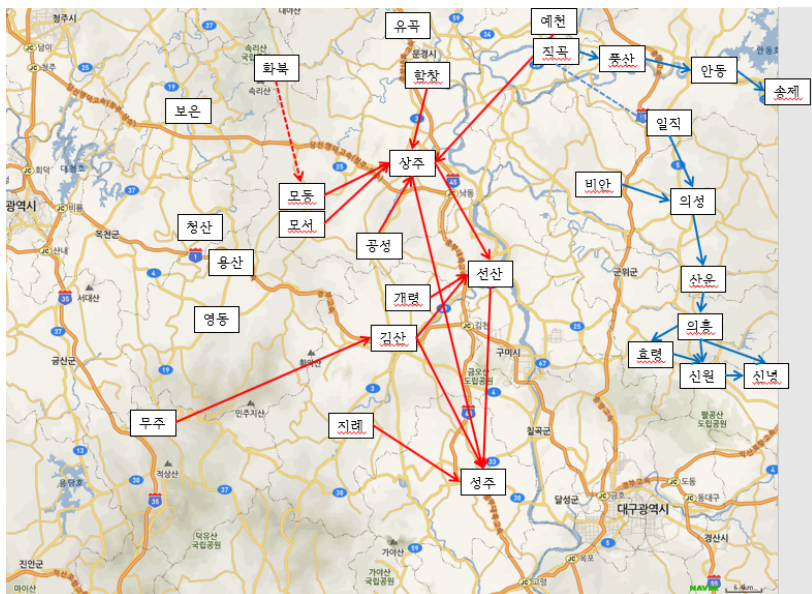
8월 하순이 되면 의성군 금성면 산운마을에 관노 출신 동학농민군들이 접소를 설치하였다. 정리하면, 7월 하순에 비안 동학농민군이 의성 관아를 점령하였고, 이후 관노 출신 의성 동학농민군이 금성면 산운마을에 접소를 설치하였다. 곧이어 이들이 진출한 지역이 바로 의흥이었다. 각 자료를 바탕으로 동학농민군의 확산을 화살표로 표시하면 <그림 2>의 지도와 같다.

8월 17일 금성면과 경계를 접하고 있던 의흥지역에 의성 동학농민군이 들어왔다. 의흥지역 사람들은 8월 14일부터 의성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살피고 있었다. 이 무렵 의성 동학농민군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적어 두기도 하였다.¹⁵⁾ 이처럼 『蒼溪實記』와 같은 기록만으로 보면, 의흥 동학농민군은 의성에서 들어온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다만 10월 이후 동학농민군의 움직임 등을 보았을 때, 성주·선산·상주 동학농민군과도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또 이들의 목표가 대구 점령이었을 가능성도 있었음을 감

13) 「李章繪隆熙四年記錄」(신진희, 「의성 동학농민군 진압자료」 「이장희李章繪 용희사년기록隆熙四年記錄」, 『한국인문융합연구』, 국립안동대학교 글로컬사업단, 2025, 183쪽).

14) 『永嘉記事』; 한국학중앙연구원, 『예천 맛길박씨家일기』 3, 2005, 218쪽(1894년 7월 25일자).

15) 「倡義錄日記」 1894년 8월 14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56쪽).



〈그림 2〉 7월 이후 동학농민군의 움직임

안해야 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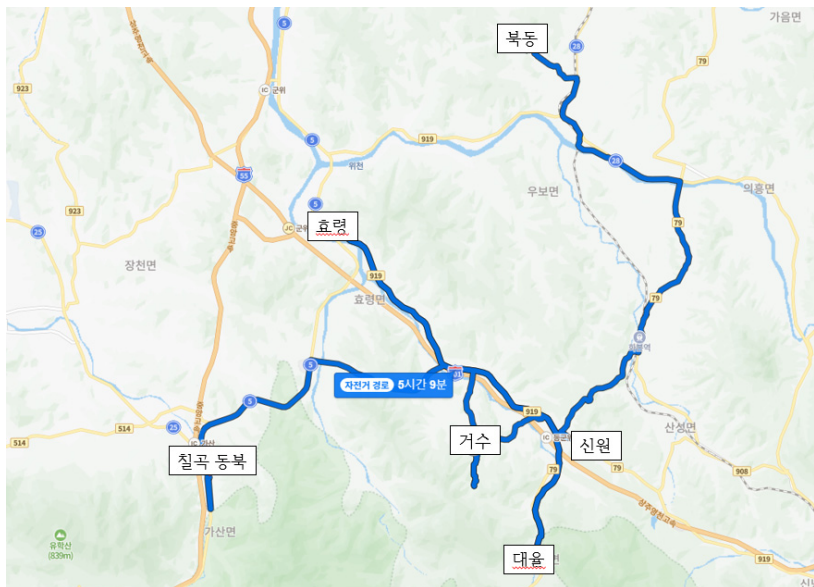
의성 동학농민군이 8월 17일에 들어온 곳은 의흥 北洞이었다. 북동은 의흥 관문에서 20리 떨어진 乃化里面(乃化面)에 속했다가 1914년 군위군 우보면 杜北洞이 되었다.¹⁶⁾ 19일 의흥관아를 점령하지 못한 동학농민군은 薪院을 점령하고 근거지를 삼아서 주변인 大栗, 巨首, 칠곡의 東北, 군위의 孝令으로 진출하였다.¹⁷⁾(〈그림 3〉 참조)

의흥관아를 점령하지 못한 동학농민군이 근거지로 삼은 薪院은 역원이 있던 곳으로 현내면에 속했으며, 현에서 남쪽으로 2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¹⁸⁾ 현재 지명으로는 군위군 부계면 창평동에 속한다. 大栗은

16) 義興郡, 『義興郡邑誌』, 1899(광무3), 7면;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599쪽;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523쪽.

17) 『倡義錄日記』 8월 19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58쪽).

18) 義興郡, 『義興郡邑誌』, 1899(광무3), 19면;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



〈그림 3〉 의흥과 그 주변지역의 동학농민군 영향력 확대

의흥군 缶南面으로, 관문으로부터 4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¹⁹⁾ 大北·東大·上大·西大洞이 합해져 1914년 군위군 缶溪面 大栗洞이 된 곳으로,²⁰⁾ 당시에도 이 일대를 대울이라고 칭했던 모양이다. 巨首는 의흥군 缶西面으로, 관문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²¹⁾ 1914년 군위군 부계면 명산동이 되었다.

칠곡 東北은 칠곡군 동북면인데, 칠곡부의 관문으로부터 50리 떨어져 있고 1914년 칠곡군 架山面이 되었다.²²⁾ 군위의 孝畝는 군위군 효

一覽』, 1912, 601쪽.

19) 義興郡, 『義興郡邑誌』, 1899(광무3), 9면.

20)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01쪽;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523쪽.

21) 義興郡, 『義興郡邑誌』, 1899(광무3), 9면.

22) 漆谷郡, 『漆谷府邑誌』, 1899(광무3), 7면;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597쪽;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527쪽.

령면을 지칭하며, 현 남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칠곡과 효령의 경우에는 어느 지점을 명확하게 표시하기는 힘들지만 편의상 지도에는 효령면사무소와 가산면사무소 소재지를 표시하였다. 이 지도를 통해 동학농민군들이 진출하여 활동한 의흥·군위·칠곡이 멀지 않은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II. 의흥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의흥에서 동학농민군이 활동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義興縣監 蔡慶默(1824~?)의 부정부패였다. 채경묵의 본관은 平康, 자는 成南, 호는 錦樵이다.²³⁾ 그는 1891년 梁山郡守, 1892년 河陽縣監을 거쳐 1893년 義興縣監이 된 인물이다.²⁴⁾ 1894년 7월 봉화현감(奉化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인해 나아가지 않았다.²⁵⁾ 그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료를 날짜 순서대로 나열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의흥현감 채경묵의 비리 관련 자료

번호	자료명	날짜	내용
1	『羅巖隨錄』	新式節目 (九月)	경상감사의 서목에, “ <u>전 의흥현감 蔡慶默은 관리에 임명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학정은 비할 데가 없을 정도(밑줄:필자)</u> 이고, 합천군수 閔致純은 3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한결같이 탐욕을 부렸다고 합니다. 해당

23) 한국고전종합DB(2024.10.19. 검색). 蔡慶默의 물년이 189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895년 6월 27일 詔勅에 의해 석방했다는 보도(『官報』 1895년 7월 5일자)가 있어, 채경묵의 물년은 그 이후로 짐작된다.

24) 『승정원일기』 고종28년 1월 29일조(양산군수). 고종29년 7월 6일조(하양현감). 고종30년 7월 28일조(의흥현감).

25) 『승정원일기』 고종31년 7월 5일조(봉화현감). 고종31년 7월 19일조(신병을 이유로 改差).

번호	자료명	날짜	내용
			아문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여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임금께 아뢰어 처벌케 하였다.
2	『司法稟報』	1894.09.06	嶺營貪贓不法之義興前縣監蔡慶默起送事
3	『承政院日記』	1894.09.08	또 의금사의 말로 아뢰기를, “경상 감사 趙秉鎬의 장계 내에, ‘거리낌 없이 재물을 탐한 <u>전義興縣監 蔡慶默(밀줄:필자)</u> , 재물을 탐하여 불법을 저지른 陝川郡守 閔致純의 죄상을 유사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한 일에 대해 계하하셨습니다. 모두 해도의 도신으로 하여금 관원을 보내어 押上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4	『啓草存案』	1894.09.11	아뢰기를, “경상 감사 조병호의 장계로 인하여, 陝川郡守 閔致純과 <u>전義興前縣監 蔡慶默의 횡령한 돈을 추징하는 일(밀줄:필자)</u> 을 의정부에서 아뢰어 처리하라고 계하하셨습니다. 탐관오리를 징계하는 일에 대하여 전후로 신칙한 하교가 얼마나 엄중하였습니까? 그런데 최근 영남 수령들이 횡령하였다는 논계(論啓)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의 2명의 수령이 처벌되기를 기다린 후 범무아문에서 집의 노복을 잡아가두고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추징한 뒤 경상 감영으로 내려 보내 여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택을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5	『承政院日記』	1894.09.11	또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경상 감사 趙秉鎬의 장계로 인하여 陝川郡守 閔致純과 <u>전義興縣監 蔡慶默이 뇌물로 받은 돈을 추징하는 문제를 모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계하하셨습니다(밀줄:필자)</u> . 탐오를 징계하는 문제에 대해 전후로 신칙한 하교가 얼마나 준엄하였습니까. 그런데 근일에 영남의 수재(守宰)가 범장(犯贓)하여 연이어 논계(論啓)에 올랐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이 지경에 이르니 차라리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위 두 고을의 수령에 대해서는 처벌하기를 기다려 범무

번호	자료명	날짜	내용
			아문으로 하여금 가동(家僮)을 잡아 가두고 모두 즉시 받아 낸 다음 해도(該道)의 감영으로 내려보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6	『官報』	1894.09.29	議政府啓曰守令遞歸後債負有無從實修啓事曾有定式而卽見嶺伯啓本安東前府使洪鍾榮大邱前判官申學休盈德前縣監張華植義興前縣監蔡慶默(밑줄:필자)公挪私負如是夥數揆以典憲極爲駭然令法務衙門拿囚一一懲捧下送該道以充公納何如 傳曰允
7	『羅巖隨錄』	甲午十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령이 체직되어 돌아간 후 채무의 유무는 사실대로 정리하여 아뢰는 일은 일찍이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방금 영남감사의 계본(啓本)을 보니, 전 안동부사 홍鍾榮, 전 대구판관 申學休, 전 영덕현감 張華植과 전 의흥현감 蔡慶默은 공금으로 사채를 갚음이 이와 같이 많으니(밑줄:필자), 법률로 비추어 볼 때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법무아문으로 하여금 붙잡아 심문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8	『啓草存案』	1894.10.29	아뢰기를, “수령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대로 보고하도록 한 定式이 있는데, 지금 경상 감사 조병호의 계본을 보니, 安東 前 府使 洪鍾榮·大邱 前判官 申學休·盈德 前 縣監 張華植·義興 前 縣監 蔡慶默은 공금을 유용하고 개인적인 부채를 진 것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밑줄:필자). 국법[典憲]으로 헤아려볼 때 대단히 놀랍습니다. 법무아문에서 잡아다 구금하고 일일이 추징하여 경상도로 내려 보내어 公納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희를 받았다.
9	『承政院日記』	1894.10.29	또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수령이 체차되어 돌아간 뒤에 부채(負債)의 유무를 사실대로 수계(修啓)하도록 한 定式이 있는데 방금 경상 감사 趙秉鎬의 계본을 보니, 전 安東府使 洪鍾榮, 전 大邱判官 申學休, 전 盈德縣監 張華植, 전 義興縣監 蔡慶默이 공금을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빌려간 채무(밑줄:필자)가 이

번호	자료명	날짜	내용
			와 같이 많습시다. 전헌(典憲)으로 살펴볼 때 지극히 놀랍습시다. 법무아문으로 하여금 나수(拿囚)하게 하고 일일이 징수하여 해도에 내려보내 공금을 채워 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10	『關草存案』	1894.11.01	慶尙監司趙秉鎬 啓本則安東前府使洪鍾榮大邱前判官申學休盈德前縣監張華植義興前縣監蔡慶默公擲私負如是夥數揆以典憲極爲駭然令法務衙門拿囚一一徵捧下送該道以充公納何如答曰允事
11	『別啓』	1895.02.12	義興 前 縣監 蔡慶默의 장전 1만 9,437냥 6전, 유용한 공전 2,534냥 2전 5푼에 또 396냥 2전 3푼. 前前 현감 趙重夏가 유용한 공전 910냥 6전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채경묵의 부정부패가 동학농민군이 일어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듯하다. 채경묵은 부임하고 1년도 되지 않아 학정을 일삼고 “거리낌 없이” 재물을 탐했다고 한다. 또 공금을 유용하고, 개인적인 빚을 졌다고 한다. 이후 채경묵의 횡령은 조사가 진행되어 장전 19,437냥, 공전 2,534냥 2전 5푼과 396냥 2전 3푼 등 총 22,367냥 4전 8푼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학농민군이 군현에 들어왔을 때 몇몇 수령들은 화를 면하기 위해 도망하였다. 의성현령 李觀永과 영덕현령 張華植이 그러하였다. 하지만 도망하지 못하여 화를 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의흥현령 채경묵이 그러하였다. 『永嘉記事』를 살펴보면, 여러 차례 악형을 당해 사경을 헤맨다고 한다라면서 간략하게 적고 있다.

채경묵은 1893년 의흥현령으로 부임한 후 학정과 횡령을 저질렀으며, 1894년 7월 봉화현령으로 제수되었으나 신병을 이유로 부임하지 않았다. 채경묵의 뒤를 이어 의흥현령이 된 이가 成泰永이었다. 성태영은 7월에 제수되었고, 8월 15일 의흥으로 부임했다.²⁶⁾ 이 두 사람이 봉화현령, 의흥현령으로 제수되는 것은 6월부터 논의되고 있었다.²⁷⁾ 관직

에 제수된다고 곧장 부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뒤에 부임하는 경우가 많다. 성태영이 그러했고, 채경묵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의흥의 유생이었던 李致宇(1828~1905)가 『柳下集』에 남긴 의흥현감 채경묵에게 보낸 편지인 「與義興倅蔡侯」은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11월에 상주소모사로 임명되는 정의묵의 이야기가 적힌 것으로 보아, 이 편지는 빨라도 1894년 11월에나 쓰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의흥현감 채경묵은 11월까지도 의흥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당시 군위현감은 李寅兢이었고,²⁸⁾ 칠곡부사는 南宮億(1863~1939)이었으며,²⁹⁾ 의흥현감은 성태영이었다. 성태영은 갓 임용된 인물이지만 이 인공과 남궁억은 이미 자신의 직위에 익숙해진 상태였다. 남궁억은 동학농민군이 일어났을 때 칠곡의 約正 曹華承, 李在厚, 李敬用과 함께 “禦侮之策”을 만들고 군기를 관장하기 위해 칠곡 가산에 머물렀다.³⁰⁾ 의흥·군위·칠곡은 수령이 도망가지 않고 지키고 있어 관의 통제력이 유지되고 있던 곳이다.

8월 17일 의성 동학농민군이 의흥 北洞으로 들어와서 19일 의흥관아에 들어왔지만 점령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首吏 朴周睦이 동학농민군에게 결박되는 일이 발생하였다.³¹⁾ 채경묵이 의흥관아에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의흥에서 다른 지역으로 몸을 피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다만 『永嘉記事』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차례 동

26) 「倡義錄日記」 8월 15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56쪽).

27) 『隨錄』, 「軍國機務處章程」, 1894년 6월 26일자(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28) 『승정원일기』 1892년 4월 24일조. 李寅兢이 軍威縣監으로 제수되었다. 이인공의 「淸德愛民善政碑」가 군위군 효령면 중구리 211-6번지에 있는데, 1894년 7월 27일에 세워졌다. 이 일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 군위에 동학농민군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9) 『승정원일기』 1893년 1월 29일조. 남궁억이 칠곡부사로 임명되었다. 『승정원일기』 1894년 12월 7일조. 남궁억이 신병을 이유로 체직을 청하였다.

30) 「倡義錄日記」 11월 20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95쪽).

31) 「倡義錄日記」 8월 19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57쪽).

학농민군에게 악형을 당해 사경을 헤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수령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공문서나 『소모사실』 등에 기재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향리였던 박주목의 결박사실이 적혔다는 것은 수령이 같은 일을 당했을 때 기록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1894년 8월 19일 동학농민군은 의흥관아에 들어간 후, 의흥 신원을 근거지로 삼고 거수·대울, 칠곡 동북, 군위 효령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근거지가 되었던 신원은 8월 21일 신석찬 의령에 의해 습격받았고, 의흥 거수리의 경우 김좌수의 집을 공략한 동학농민군의 이야기가 남아 있어 이곳에 진출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신녕의 화산과 군위의 효령에도 점소를 설치하였고,³²⁾ 칠곡 동북면과 영서면에서도 동학농민군이 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³³⁾

이처럼 의흥 신원·신녕 화산·군위 효령 등을 확보한 동학농민군은 의흥과 그 주변지역 사람들에게 동학농민군에 가담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였다. 동학농민군 가담 요구 활동은 8월 20일부터 시작되었다.

동학농민군이 가장 먼저 동학농민군 가담 권유를 한 곳은 申錫燦(1851~1921)의 집이었다.³⁴⁾ 신석찬은 본관이 평山이고 호가 蒼溪이며 의흥향교 約長과 校議를 지낸 인물이다.³⁵⁾ 1894년 8월 20일 이른 아침, 동학농민군 몇 명이 찾아와 동학농민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석찬은 재물도 없고, 나이도 오십에 가까워 짐을 지지도 못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동참을 거절하였다. 이어서 전날 와 있었던

32) 「倡義錄日記」 8월 21일~22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7쪽).

33) 「倡義錄日記」 8월 22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8쪽).

34) 「倡義錄日記」 8월 20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59쪽).

35) 김봉근, 「『창계실기(蒼溪實記)』와 경상도 의흥·군위·칠곡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 경상북도·상주시·상주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2014, 42쪽 참조; 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동학농민군 진압 사례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21쪽.

대구의 선비 李炳斗와 함께 남쪽 성향산으로 몸을 피했다.

이병두와 함께 몸을 피한 신석찬은 城項山에서 의흥지역 인물들을 만났다. 洪奎欽·斗欽 형제, 李鍾根, 李教燮, 족속 申在河였다.³⁶⁾ 이들도 동학농민군을 피해 성향산을 올랐던 것이다. 신석찬은 “황망하고 울화통이 터질 때, 더구나 동지들을 기약하지도 않고 만났으니”라고 적었다. 의흥지역 인물들이 모여 신석찬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계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때였다.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거수리 김좌수의 집에 들어가서도 진행되었다.³⁷⁾ 신석찬에게 김좌수의 집에 동학농민군이 들어가 약탈을 하고, 약탈한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동학농민군 한 명이 지키는 상황이라고 전달되었다. 이 사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하나는 김좌수가 동학농민군에 가담하지는 못하였지만 필요한 물건을 제공했을 가능성, 다른 하나는 김좌수 등 집안 사람들이 몸을 피해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약탈하기 위해 동학농민군 한 사람이 물건을 지켰을 가능성이다.

이 소식은 신석찬에게 전달되었고, 신석찬 의려가 처음으로 동학농민군과 싸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신석찬 의려는 거수리 김좌수의 집이 아니라, 신원에 있던 동학농민군을 습격하였다. 그 결과 동학농민군 지도자가 죽고, 27명의 동학농민군이 붙잡히게 되었다.³⁸⁾ 조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동학농민군 참여자 이름은 하나도 적혀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조사를 받은 다음날 모두 처형되었다.

9월 의흥에서 활동하지 않던 동학농민군은 10월 들면서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 듯하다. 10월 8일 “수상한 사람”이 경내로 몰래 들어오자 약

36) 『倡義錄日記』 8월 20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0쪽). 번역문에는 李在河로 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在河로만 표현되어 있다. 또 신석찬의 族叔이고, 8월 22일자 일기에 신재하라는 인물이 나오는 점으로 미루어 신재하일 가능성이 높아 수정하였다.

37) 『倡義錄日記』 8월 21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3쪽).

38) 『倡義錄日記』 8월 21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4쪽).

장이 이를 잡아 관아로 보냈다는 내용이나,³⁹⁾ 10월 28일 김산과 상주 동학농민군이 강을 건너 의흥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⁴⁰⁾ 이후 의흥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더 이상 포착되지 않는다.

의흥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의 이름은 확인할 수가 없었으나, 주변지역인 칠곡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칠곡부사 南宮櫓의 첩정에 적힌 李景八, 宋海出, 裴召史, 李元發, 張士震 등이 그들이다. 李景八과 宋海出은 동학농민군이 되어 무리를 모아 여기저기 출몰하여 겁을 주고 약탈하였다고 하며, 裴召史는 양반가의 여종인데, 동학농민군이 되어 상전에게 욕지거리를 퍼붓고, 家産을 빼앗았으며, 李元發은 동학농민군으로서 활동이 많아서 “罪犯이 深重”하다고 하였으며, 張士震은 남의 재산을 겁을 주어 약탈했다고 한다. 이에 11월 21일 총살했다고 한다.⁴¹⁾

이 첩정을 살펴보면, 동학농민군이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행동을 한 듯하다. 여성 동학농민군 배조이는 여종이었다가 동학농민군에 가담하여 상전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가산도 약탈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仁同에서도 있었다. 인동부사 趙應顯의 첩정에 동학농민군 禹連石과 金時從은 종놈으로서 동학농민군에 가담해 상전을 위협하고 노비 문서를 불사르고, 贖身하였다고 하였다.⁴²⁾ 의성 동학농민군의 경우, 良籍을 불태워 없앴으로써 중간 수탈을 일삼았던 양반과 이속에 대한 사무친 원한을 풀었고, 관노 출신 동학농민군들이 양반마을인 산운마을에 들어가 강제로 동학에 입도시키는 방법으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다.⁴³⁾ 칠곡의 여성 동학농민군 배조이는 인동 동학농민군 우연석과 김

39) 『倡義錄日記』 10월 9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89쪽).

40) 『倡義錄日記』 10월 28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92쪽).

41) 『乙未正月初十日別報』,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2018, 168쪽).

42) 『甲午十二月二十八日別報』,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2018, 155쪽).

시종처럼 노비문서를 불태우지는 못하였지만 상전에게 욕지기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사무친 원한을 풀었던 것으로 보인다.

III. 신석찬 義旅의 동학농민군 진압과 會約所 활동

1. 신석찬의 義旅 결성과 동학농민군 진압

향촌지배층은 부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동학농민군이 사또와 아전을懲治한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인식하였고, 동학농민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세력이 확대되는 것 또한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향약을 통해 향촌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리를 모아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의흥에서는 신석찬이 그 중심에 있었다. 1894년 8월 20일, 성항산에서 만났던 이들과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고, 저녁 李 璠가 찾아와 “근처 사람들을 격동시켜 도적의 소굴을 소탕하자”는 通章을 보고, 같은 뜻을 가진 인물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하기로 하였다.

이들 외에도 신원에 있는 李寅坤과 李永春에게 사람을 보내 뜻을 같이하자고 권했다.⁴⁴⁾ 또 李庭杓, 洪祺鎭, 李瑠, 洪祺杓, 禹圭碩, 白成根 등이 동참하였다. 이정표, 홍기진, 이류는 신원으로 가서 동학농민군을 탐지하고, 홍기표, 우규석, 백성근은 서남쪽으로 가서 義旅 결성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⁴⁵⁾ 이로써 신석찬 의려가 결성된 것이다.

43) 한국학중앙연구원, 『예천 맞질 박씨家일기(1894년 8월 24일자)』 3, 2005, 220쪽(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동학농민군 진압 사례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35쪽 재인용).

44) 『倡義錄日記』 8월 20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1쪽, 영인 147쪽).

8월 21일 새벽에 南嶽에 살고 있던 홍규흠이 통문을 받고 찾아왔고, 그의 계책을 듣고 이정표를 동쪽으로, 신석찬은 서쪽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이 일어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⁶⁾ 이날 김좌수 집에 남아 있는 동학농민군 소식을 들은 신석찬은 각지에 일어나기로 한 이들을 모아 신원에 모여 있던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러 갔다. 세 방면에서 모두 몽둥이를 잡고 새끼줄을 찬 상태에서 한꺼번에 습격하여 우두머리를 죽이고, 27명을 붙잡았다.⁴⁷⁾

27명의 동학농민군 조사가 끝난 후, 칠곡 동북면에 사는 蘇龍九가 찾아왔다. 당시 漆谷府使는 南宮億이었다. “촌락을 순찰하여 백성의 고충을 살피고 壯丁을 모집하여 비류를 소탕[巡村察隱 募丁剿匪]”했다는 기록이 있으나,⁴⁸⁾ 칠곡 동북면 소용구가 살고 있는 곳까지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듯하다. 이에 소용구는 근처에서 의려를 결성한다는 신석찬의 통문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는 동학농민군에 대해 “조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국가에 죄지은 역적이고, 이미 匪類로 일컬어지니 반란자들이며, 하나같이 약탈을 일삼으니 민간의 큰 도적”이라고 했다.⁴⁹⁾ 동학농민군을 역적이자, 반란자, 도적으로 규정하면서 붙잡혔던 27명의 동학농민군을 모두 죽이고 관에 그 사실을 통고하였다. 이로써 신석찬 의려가 첫 번째로 신원에서 벌였던 싸움이 끝났다.

두 번째 싸움은 신령에서 벌어졌다. 신령현감은 閔泳惠이고, 그는 신령에 동학농민군이 활동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관아를 지키지 않고 도망간 일로 파출되었다.⁵⁰⁾ 그의 뒤를 이어 신령현감으로 제수된 이가 權

45) 『倡義錄日記』 8월 21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2쪽).

46) 『倡義錄日記』 8월 21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2~163쪽).

47) 『倡義錄日記』 8월 21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2~164쪽).

48) 『甲午十二月初十日褒貶封 啓』,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2018, 85쪽).

49) 『倡義錄日記』 8월 21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6쪽).

50) 『승정원일기』 1894년 9월 4일조 ; 『승정원일기』 1894년 10월 27일조.

載紀였다.⁵¹⁾ 따라서 신녕은 관의 통제력이 없어진 상태였고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던 곳이다. 그래서 그곳과 가장 가까운 의흥 현내면의 신석찬 의려가 신녕의 동학농민군을 진압했던 것이다. 동학농민군 진압이 완료된 후 임명된 新寧縣監 權載紀는 “백성의 고충을 두루 살피고 아전의 逋欠을 엄격히 收刷하였다[遍察民瘼 嚴刷吏逋]”고 한다.⁵²⁾

신녕에서 벌어졌던 싸움은 신원싸움이 끝난 8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까지 벌어졌다. 동학농민군이 화산부에 “소굴”을 설치했다는 소식을 신녕에서 온 사람이 전하자, 崔任汝이 동학농민군 진압에 자원하였다. 신녕은 신원과 경계를 접하고 있던 곳으로, 화산이 그 사이에 위치하였다. 다음 날 새벽, 최임문은 화산으로 가서 동학농민군을 사로잡고 보검을 획득하여 돌아왔다.⁵³⁾ 세 명의 동학농민군을 포로로 잡았다. 이에 의흥현감 성태영이 형리 이양옥과 함께 와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 있던 신석찬의려를 치하하였다.

세 번째 싸움은 효령에서 벌어졌다. 신녕싸움이 끝나고 신석찬의려는 화산에서 잡은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효령으로 갔다. 소용구가 칠곡 동북면과 영서면 사람들과 함께 효령의 동학농민군 집소를 습격하여 확보한 뒤였다. 화산의 동학농민군과 효령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백사장에서 심문하였는데, 신원 동학농민군들에게 행했던 처벌과 똑같이 모두 죽였다.

효령은 군위 소속이었기에 軍威縣監 李寅兢에게 보고하고 치하받았다.⁵⁴⁾ 군위현감 이인공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뒤에 “頑惡한 아전을 징계했다[懲吏之頑 終以行令]”고 하는데,⁵⁵⁾ “완악한 아전”이라는 사람은

51) 『승정원일기』 1894년 9월 11일조.

52) 「甲午十二月初十日褒貶封 啓」,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2018, 89쪽).

53) 「倡義錄日記」 8월 22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7쪽).

54) 「倡義錄日記」 8월 22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8쪽).

아전 가운데 일부가 동학농민군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듯하다.

2. 三邑 會約所와 각 면 約所 결성

신석찬 의려는 세 차례 동학농민군과 싸움을 벌였지만, 회약소를 결성하여 재발 방지에 힘썼다. 1894년 8월 23일 각 면 단위로 향약을 기반으로 약소를 만들고 의흥·군위·칠곡 三邑約長을 선출하여, 민을 통제하기 위해 나섰다.

義興漆谷軍威三邑約長座目

義興	缶南面 約長 洪奎欽
	縣內面 約長 申錫燦
	缶西面 約長 朴斗運
	嶺東 約長 金在漢
	薪院 約長 李永春
漆谷	缶東面 約長 李汶在, 金震海
	身南面 約長 吳汶
	東北面 約長 蘇龍九
軍威	孝令面 約長 李堯性
	中里面 約長 李晩性, 裴壽綰 ⁵⁶⁾

회약소는 의흥 7개 면, 칠곡 1개 면, 군위 2개 면이 참여했다. 성향산에서 신석찬과 뜻을 같이 했던 홍규흠이 부남면 약장으로 이름이 올랐고,

55) 「甲午十二月初十日褒貶封 啓」,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2018, 89쪽).

56) 「倡義錄日記」 8월 23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영인본 162쪽). 번역본에 부서면 약장 박두운이 빠져있어 영인본을 인용하였다.

의흥에서 세 차례 동학농민군과 싸움을 벌였던 신석찬이 현내면 약장으로, 신석찬이 의력을 결성할 수 있도록 通章을 작성했던 이영춘이 신원 약장, 효령싸움을 벌였던 소용구도 칠곡 동북면 약장을 맡았다. 의흥·군위·칠곡 삼 군현의 연합조직이 결성된 것이다. 회약소는 「揭文」으로 결성이유를 알렸고,⁵⁷⁾ 효율적인 민의 통제 방법을 「節目」에 담았다.⁵⁸⁾

의흥 현내면 약장인 申錫燦은 1894년 8월 24일 約所를 따로이 결성하였다. 약소는 현내면 약장인 신석찬이 만든 것으로 회약소의 기본조직이었다.

本面約所爬任

約長	申錫燦
左統長	李琥
右統長	李理坤
公事員	申在河, 李教燮, 李瑠, 李學坤
文案	李寅坤, 李鍾根, 申錫霖, 李璵, 申錫珣, 李鍾震

약소의 조직은 면의 대표로 약장을 두고 그 아래에 좌통장과 우통장 각 1명, 공서원 4명, 문안 6명을 두었다.⁵⁹⁾ 신석찬 약소의 역할은 「계문」, 「절목」의 내용대로, 현내면의 각 마을에 동학농민군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백성들이 동학농민군에 가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었다.

회약소와 약소는 講을 통해 유생들을 참여시키는 한편, 동학농민군이 활동하면 병력을 이끌고 출정하는 활동도 했다. 1894년 10월 동학농민군이 칠곡에서 효령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약소 병력을 이끌고 馬嶺고개에서 잠복한 일이 그 한 예이다.⁶⁰⁾ 10월 28일도 김산과

57) 「倡義錄日記」 8월 23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74~175쪽).

58) 「倡義錄日記」 8월 23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71~174쪽).

59) 「倡義錄日記」 8월 24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75쪽).

상주 동학농민군이 강을 건너 의흥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회약소와 약소 병력이 가산에서 집결한 일도 있었다.⁶¹⁾

11월부터 회약소는 활동지역이 넓어지고, 군정을 징발하였으며, 군량미를 운반하는 등 활동이 많아졌다. 그 변화의 계기는 仁同府使 趙應顯이 討捕使가 되어 인동·칠곡·선산·개령·김산·군위·비안·성주·고령의 9개 고을을 관할하게 된 것이다.⁶²⁾ 칠곡부사 남궁억이 베푼 대접을 받기도 했는데, 이는 칠곡의 士人들과 의흥 약소가 교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⁶³⁾ 또 金山郡守 朴駿彬은 助防將으로 임명되었고,⁶⁴⁾ 조방장 박준빈은 의흥현감 성태영에게 都執綱, 糧餉有司, 文案儒生을 뽑도록 하였다.⁶⁵⁾ 이에 의흥현감 성태영은 각 면 약장과 논의하여 도집강에 朴顯鶴, 양향유사 洪晚份, 문안유생에 金斗明을 추천하였다.⁶⁶⁾

12월 12일 인동토포사 조응현이 의흥현감 성태영에게 병력을 요청하고, 14일 인동토포사가 신석찬에게 官砲 2백 명을 징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신석찬은 인동 약정 張廈相, 張璉煥, 張翼鎭, 張源喜, 金俊

60) 「倡義錄日記」 8월 25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79~180쪽). 동학농민군은 이 소식을 접하고 몸을 피했기에, 동학농민군과 회약소 병력 간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않았다.

61) 「倡義錄日記」 1894년 10월 28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92쪽). 이날 동학농민군의 형세를 탐지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가 본진이 있는 남삼리로 돌아왔다. 탐지내용은 의흥현감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62) 『고종실록』 1894년 11월 7일조 ; 『甲午實記』 1894년 11월 7일자(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9, 2011, 79쪽) ; 『召募日記』 1894년 11월 26일자(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441쪽).

63) 「倡義錄日記」 1894년 11월 22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96쪽).

64) 『啓草存案』 1894년 11월 13일자.

65) 「倡義錄日記」 1894년 12월 12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98쪽).

66) 「倡義錄日記」 1894년 12월 13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98~199쪽).

飭과 송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⁶⁷⁾ 의흥 관포 2백 명을 차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인원이 의흥에서 부담하기에 많아 50명으로 줄였으며,⁶⁸⁾ 군량금도 1인당 10냥씩으로 줄였다.⁶⁹⁾

12월 19일 의흥현감 성태영은 다시 신석찬에게 출병에 나설 것을 요청하였다. 상주 소모영 소모사 鄭宜默의 공문과 尙州牧使 李晚胤의 보고에 동학농민군이 김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⁷⁰⁾ 이에 도집강 박현학이 군정을 조발하였는데, 각 면 약장이 각 면 사람들을 응하게 했기 때문에 인원을 모을 수 있었다. 이처럼 당일로 많은 인원을 징발한 것은 회약소가 제 기능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

신석찬은 20일 출발하여 신원에 도착하였으나 군량이 마련되지 않아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은 21일 사창미를 수송하여 군량을 조달하였고 각자 전대와 주머니에 넣어 휴대토록 함으로써 해결되었다.⁷¹⁾ 22일 신석찬과 2백 명의 군정이 출발하려 할 때 전라도의 동학농민군 2천 명을 격퇴했으므로 의흥 군정도 돌아가라는 감결이 도착하였다.⁷²⁾ 이로써 조발된 의흥의 군정은 귀가할 수 있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끝나고 8~9년이 지난 후, 緝捕使 趙秉瑜의 요청으로 신석찬은 다시 길을 나섰다. 왜냐하면 동학농민군이 활

67) 「倡義錄日記」 1894년 12월 14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200~201쪽).

68) 「倡義錄日記」 1894년 12월 15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201쪽).

69) 「倡義錄日記」 1894년 12월 16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201쪽).

70) 「倡義錄日記」 1894년 12월 19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202쪽).

71) 「倡義錄日記」 1894년 12월 21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208쪽).

72) 「倡義錄日記」 1894년 12월 22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210쪽).

동했던 경주·청송·의성·영천·신녕·비안 등에서 성읍 공략과 향리 약탈 등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⁷³⁾ 이때 「約中完議」와 「節目」을 가지고 다녔고 1905년 1월 16일에는 의흥·군위·칠곡의 약장·통장 등을 모아 효령에서 甲午式에 맞게 戡捕使가 점고하기도 했다.⁷⁴⁾

신석찬은 『갑오군공록』이나 『동학당정토인록』에 오르지 못하였다. 의흥 유생들이 처음에는 의흥현감에게, 그 다음에는 경상도관찰사·군무아문·궁내부 등 관련 부처에 신석찬의 포상을 위해 「狀草」, 「上書」 등을 올렸으나 실패했다.

맺음말

이 글은 경상도 의흥을 중심으로 군위·칠곡에서 벌어졌던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살폈다. 먼저 경상도 의흥지역에 동학농민군이 예천-비안-의성을 거쳐 들어오게 된 경로를 파악했다. 지도에 그 경로를 표시하면서 상주에서 김천-성주로 들어온 동학농민군과 함께 대구부를 점령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살필 수 있었다. 또 동학농민군은 가장 먼저 의흥 북동으로 들어왔고, 신원을 거점으로 삼아 주변인 대울·거수리, 칠곡 동북·영서면, 군위 효령면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다음으로 의흥 사람들이 동학농민군에 동참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전현감 채경묵의 부정부패였음을 확인하였다. 『나암수록』·『사법품보』·『계초존안』·『관초존안』·『별계』 등 다양한 자료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73) 「倡義錄日記」,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211~212쪽). 동학농민군이 활동했던 지역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미리 단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74) 「倡義錄日記」 1905년 정월 16일 세 고을의 會中,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214쪽).

수 있었다.

의흥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먼저 전 의흥현감 채경묵과 부정부패에 동참한 아전에 대한 정치행위, 다음으로 신원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 세력 확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치행위와 민의 동학농민군 가담은 향촌지배층의 위기감을 고조시켜, 신석찬 등이 의려를 결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신석찬 의려는 칠곡·군위·의흥지역 동학농민군을 진압했고, 회약소를 결성해 민을 통제했던 부분까지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전라도나 경상도 상주·예천 등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비교하면, 의흥·군위·칠곡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크지 않았다. 8월 17일에 들어와 22일까지 5일간의 활동에 불과했다. 10월 들어서도 조금의 움직임이 보이는 하였으나 금새 사그라들었다. 동학농민군이 대구부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투고일 : 2025. 3. 5. 심사완료일 : 2025. 4. 27. 게재확정일 : 2025. 5. 12.

참고문헌

〈사료〉

- 『고종실록』
『官報』
『승정원일기』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李章綸隆熙四年記錄」
『永嘉記事』
『甲午實記』(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9, 2011).
『甲午斥邪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2018).
『召募日記』(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軍威郡, 『軍威郡邑誌』, 1899(광무3).
義興郡, 『義興郡邑誌』, 1899(광무3).
漆谷郡, 『漆谷府邑誌』, 1899(광무3).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단행본〉

- 박맹수, 2009,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충청북도, 2006,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충청북도.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예천 맛질박씨家일기』 3,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논문〉

- 김봉곤, 2014.8.26., 「『창계실기(蒼溪實記)』와 경상도 의흥·군위·칠곡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학술자료집), 경상북도·상주시·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신영우, 1991, 「1894년 영남 김산의 농민군과 양반지주층」, 『동방학지』 7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63~218쪽.
———, 1984, 「1894년 영남 예천의 농민군과 보수집강소」, 『동방학지』 4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47쪽.

신진희, 2016,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동학농민군 진압 사례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진희, 2025, 「의성 동학농민군 진압자료_「이장희李章繪 翁희사년기록隆熙四年記錄」」, 『한국인문융합연구』, 국립안동대학교 글로벌사업단.

〈아카이브〉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기록유산DB.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Abstract〉

Activities of Donghak Peasant Army in Uiheung, Gyeongsang Do

Shin, Jin-Hui*

This article examines the route through which the Donghak Peasant Army entered the Uihung region of Gyeongsang Province and reveals the reasons why the people of Uihung joined the Donghak Peasant army. Additionally, it analyzes the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Uihung region and organizes the actions of Shin Seok-chan, who sought to suppress the Donghak Peasant army, in chronological order. Through this, it illuminates the appearance of Donghak Peasant Army not only in the Uiheung area, but also in Chilgok and Gunwi, the surrounding areas.

On August 17, 1894,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Uiheung area moved to Yecheon-Bian-Uiseong-Uiheung. The Donghak Peasant Army, which went to Bian through Yecheon, moved to Uiheung through Uiseong. There are many causes, but the direct cause was the corruption of Chae Gyeong-mook, a governor of Uiheung County.

Uiseong Donghak Peasant Army entered the Bukdong of Uiheung, occupied Shinwon and used it as a base, and advanced to the surrounding areas, Daeyul and Geosu. In addition, it expanded its power beyond Uiheung to the Dongbuk of Chilgok and the Hyoryeong of Gunwi.

* Gyeongbuk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On August 20th, Shin Seok-chan(申錫燦, 1851~1921) formed Uiryeo to prevent the Donghak Peasant Army from expanding its power. The next day,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the Donghak Peasant Army fought for the first time in Shinwon on the 21st, and the Shinnyeong fight continued until the dawn of the 22nd, and the fight with Shin Seok-chan Uiryeo and Donghak Peasant Army ended after the Hyoryeong fight that took place during the day on the 22nd.

After the fight with the Donghak Peasant Army, Shin Seok-chan formed a Hoiyakso to control the Hyangchon society. The members of the Hoiyakso were those who participated in Uirye, and it was natural to include the Uiheung area, Gunwi, and Chilgok areas.

Key word : The Uihung, The Donghak Peasant Army, Shin Seok-chan, Chae Gyeong-mook, The route

